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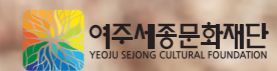


2021. 겨울

여유

驪遊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매거진



여유

驪遊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매거진



표지 이야기

혼암리 선사유적지
경기도 기념물 제155호
여주시 점동면 혼암리 산2-1 일대

점동면 혼바위마을에는 선사시대의 집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16채에 이르는 집터와 토기, 석기 등이 발굴됐지요. 집터에는 화덕 자리도 있는데 그곳에서 불에 탄 쌀 두 톨이 발견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두 톨의 탄화미는 당시 청동기인이 쌀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여주 쌀농사의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농사는 정주와 촌락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이 적어 중일 그윽한 햇살이 내리고, 물 맑고 땅이 좋아 쌀농사를 짓기 좋은 여주. 선사인들이 집터로 삼은 이유를 알 만합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는 쌀농사가 중심이 되는 도작(稻作)문화입니다. 한반도 문화의 중심에 쌀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문화도 활짝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쌀 농사의 발원지인 여주! 그 여주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매거진 <여유>가 여주 시민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일궈나가겠습니다.



유물 소장처: 서울대학교박물관
사진 제공: 여주박물관



이야기 하나. 여주와 여유

04 여주의 그림

비옥한 땅이 준 선물, 맛보고 즐긴다

10 기획 특집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이야기 둘.

여주 사람, 여주 문화

18 여주인

추연당 이숙 대표, 맛있는 음료 '추와 인연'이 만나니
경기실크 이우린, 여주 잠사업의 산증인
숨마루농원 이하정 농부, 농사로 건강해진 마음 지역사회 관심으로 환원

30 예술 교과서를 펴고

일상이 곧 예술이 된다면
당신이 한 권의 그림책이 되듯

34 여강길 이야기

마암에서 나타난 두 마리의 용

38 이 한 장의 사진

그 시절 여주, 그곳

40 여주 테마 기행

발길과 손길로 돌에 새겨진 사연들

46 세종 이야기

조선의 하늘을 가진 세종의 꿈, 오늘에 되새기다



이야기 셋.

우리 곁에 여주세종문화재단

52 다시보기

여주목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다
'이주 시대의 언어' 대화를 바라보며
'여주 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민중사의 과제'를 다시 보며

62 들여다보기

여주세종문화재단 공연·교육·학습대회·문화 행사·축제·전시

66 여주의 창

독자 후기+설문 이벤트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예술마당 달 포토존

비옥한 땅이 준 선물, 맛보고 즐기다

여주오곡나루축제

비옥한 토지를 가진 여주는 쌀과 오곡, 고구마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유명한 고장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루터를 이용해 여주의 농특산물을 왕에게 진상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다.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여주가 자랑하는 농특산물의 홍보·판매와 더불어 여주 전통문화를 즐기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화관광축제', 경기도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나루마당 포토존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나루마당 야간 경관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개막 퍼포먼스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개막식, 비슬무용단의 공연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여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여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여주의 대표적인 축제다.





2018 여주오곡나루축제



옛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주오곡나루축제만의 자랑거리다.



2018 여주오곡나루축제의 황포돛배

2018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여주오곡나루축제는 대형 가마솥 12개를 설치해 여주 쌀로 만든 8,300명분의 오곡 비빔밥을 준비했고, 군고구마 기네스라는 이름으로 초대형 군고구마 통을 5기 배치해 1,800여 명이 한 번에 고구마를 직접 구워 먹는 퍼포먼스가 연출되기도 했다.

나루굿놀이만 여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동아굿과 용작두굿을 포함해 태백산 김릉소에 다다른 전설을 이야기로 입혔으며, 조포 나루터 황포 돛배의 안녕과 나루터 삶을 기원하기 위한 차별화된 무속 연희도 연출됐다. 나루터를 조선시대로 재현하고, 제련제철 타갈 체험, 대장간, 작두뽑기, 옛날 전통 우물, 디딜방아, 도자기 노천 소성 체험, 조포소, 나루주막, 씨름, 목각, 석조각 등 조선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주' 하면 떠오르는 오곡나루축제만의 색으로 자리 잡았다. 황포 돛배 타고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구경하는 것은 물론, 옛날 복장(치마저고리, 두건, 광목옷 등)을 한 점원들이 전통 막걸리, 빈대떡 등을 파는 주막 장터는 옛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주오곡나루축제만의 자랑거리이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2019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고, 2020 여주오곡나루축제도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상황에서 관내 대형 쇼핑몰을 활용해 '작은 축제의 장'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으로 행사를 추진했으며, 여주 농특산물의 홍보·판매와 더불어 여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행사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여주몰(www.yeojumall.com)에서도 여주의 농특산물을 선보였고, 행사 기간 중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여주 쌀과 고구마 등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여주 농특산물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대형 쇼핑몰에서 '작은 축제의 장'으로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이 열렸다.



여주오곡나루축제는 '2021 문화관광축제', 경기도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된 축제다.



2018 여주오곡나루축제 때 선보인 군고구마 기네스



기획 특집

10 기획 특집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2021년 여주세종문화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숨 가쁘게 달렸다. 여주의 문화 정체성을 정립하고,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노력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분주했던 여주세종문화재단의 2021년, 어디를 향해 얼마만큼 나아갔는지 평가하자니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한 지역의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지역의 문화자원과 역량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필자는 그것을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조건 ▲시민의 욕구라고 생각한다. 문화재단의 한 해 사업 평가 기준으로 너무 큰 주제를 꺼내 들었나 싶기도 하지만, 멀리 내다봐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커다란 도화지를 펼쳐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여주 문화의 뿌리, 찾고 모으고 기록으로 남기다

‘문화적 정체성’은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어렵게 느껴진다. 문화적 정체성은 그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동질성을 의미한다. 여주에는 여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여주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해온 여주만의 문화적 색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도 여주 사람들에 의해 가꾸어지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노력이 첫 번째 평가 지점이다.

재단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여주의 자연과 역사와 사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와 기록을 모으고 분류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강’





2021 여주목(청심루) 학술대회



뮤지컬 <세종, 1446>



여주세라민페어

의 이야기를 2021년에는 전설, 민담, 설화들로 채워 책으로 펴냈다. 청소년과 시민이 여주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툰으로 제작한 것도 눈에 띈다. 40개 여주 '마을'과 12개 읍면동의 '길'에 얽힌 이야기들을 발굴,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여주의 생활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민 28명의 '구술채록집'도 펴냈다. 재단은 여주의 찬란한 역사를 발굴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여주목(청심루)'의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복원의 당위성을 확보했고, '여주 동학농민군'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고, '해월 최시형'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주도자기축제 백서'를 발간해 지난 30

년간 이어온 도자기축제의 역사와 성과도 정리해냈다. 세종대왕과 한글의 도시 여주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사업도 계속됐다. 뮤지컬 <세종, 1446>이 한글날 특별 공연(온라인 생중계)과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났고,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한글날 문화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한글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주 시대의 언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이 학술대회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면 한글의 도시 여주의 정체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재단의 이러한 활동 성과들은 55권의 책으로 출판된다. 이 기록들은 여주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자 방향키가 될

것이다. 재단은 2022년에도 여주 문화의 뿌리를 찾아 기록하는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혼암리의 탄화미 유적을 활용해 '여주 쌀'에 대한 스토리를, 중암리 가마터를 활용해 '도자기'에 대한 스토리를 짜 들어갈 계획이고, 여주 마을의 옛 지명 발굴을 시도한다. 도자기와 로컬푸드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음식 문화를 활용한 도자기 산업 활성화 전략에도 도전한다. 이제 재단에 주어진 숙제는 이 기록들이 기록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 속의 찬란한 여주 역사와 문화를 현실로 이끌어내 시민의 생활과 결합하는 다양한 사업이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팬데믹, 문화예술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2021년 한 해를 평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다. 감염병 창궐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단은 무엇을 재단의 역할로 삼고 어떤 사업을 펼쳤을까? 재단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문화예술 마음 방역'을 제 역할로 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주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사업을 기획, 추진했다. 재단은 2021년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획 공연과 무료 공연 등 총 31회(비대면 포함)의 공연을 진행했다. 4만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안전하게 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재단은 네이버TV 채널

을 통해 랜선살롱 드 피아노-김정원 리사이틀, 가족뮤지컬 <종이아빠>, 어린이 뮤지컬 <겁쟁이 빌리> 등의 공연을 송출해 여주 시민이 집에서 편히 공연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매달 진행된 문화가 있는 날 '악기의 향해' 시리즈는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해설을 통해 듣는 즐거움과 예술 지식을 함께 제공했다. 비록 공연장의 규모는 작았지만 오히려 관객과 소통하는 따뜻한 진행으로 작은 공연장의 장점을 잘 살렸고,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어 매달 찾게 된다는 좋은 반응도 이끌어냈다. 3개 지역 문화재단과 뮤지컬 제작사가 공동 제작한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민예술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글'에 '민화'를 접목한 민화 배우기 교육은 참가자들의 자발성이 돋보였고, '시민예술학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야간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여주의 자연과 역사와 사람,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와 기록을 모으고 분류하고 집대성하는 작업들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사업을 기획, 추진했다.



한글날 기념전시 먹빛누리전



명성황후송모듬



시민참여프로그램 한글을 담은 여주민화배우기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악기의 향해 시리즈, <재즈 피아노의 향해>



악기의 향해 시리즈, <반도네온의 향해>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시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작자로, 능동적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악기의 향해 시리즈,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향해>

반까지 운영했다. 비대면 예술교육 플랫폼에서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강사로 나섰고, 명성황후기념관에서는 다양한 박물관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여주의 예술가와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예술창작지원',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다. 재단이 정성들여 준비한 공연과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시민 참여의 폭이 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연의 퀄리티는 이미 증명되었기에 한 번 접하게 되면 계속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첫 만남의 기회를 더 넓히는 것이 재단 앞에 놓인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창작과 향유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다

밥만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 문화가 복지인 시대다. 감염병이 도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시민은 끊임없이 문화적 욕구를 드러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는 '향유'의 단계에서 '창작'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떤 애를 썼을까. 재단은 더 많은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창작자, 기획자로 나설 수 있게 도왔다. 재단이 추진한 '빈집예술공간'은 도심의 빈 점포나 건물을 임대해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문을 연 여주한글시장 1호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살려 2021년 총 14회의 전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2020년 여주한글시장에 문을 연 빈집예술공간 1호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살려 2021년 총 14회의 전시를 성황리에 진행했고, 이 성과를 이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빈집예술공간 2호를 개관했다. 빈집예술공간이 주민과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 발전해나가기 기대한다.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자동차영화관'에서는 2021년 4개 시즌 동안 28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총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재단은 10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교과서에서 나온 예술수업'을 진행했고, 읍면 단위로 찾아가는 '동네방네 음악회'를 통해 700여 명의 시민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도자기축제를 대신해 진행된 '여주세라믹페어'에는 27개 도예업체가 참여하고 25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여주세라믹페어는 도자기의 고장 여주의 자부심을 심어 주면서 지역 도자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행사로 진행된 '여주오곡나루마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즐기면서 여주의 농특산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두 행사를 관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여주몰'이 도자기에서 농특산물까지 확장 운영되면서 시민과 소비자의 아쉬움을 달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두 행사를 방문객이 많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라는 장소에서 진행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낸 점도 주목된다. 재단은 시민을 문화예술의 능동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기반도 쌓아나갔다. '시민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벽화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또한 소외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시민참여형 '여주문화 사진전'을 열어 시민이 사진작가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시민-예술인-재단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문화예술 시민 활동단'을 구성해 모니터링 활동, 공연장 안내, SNS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여주 문화자원 그림책 체험'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그림책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단과 시민의 파트너십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됐다. 이처럼 재단은 시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이자 창작자로, 능동적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글의 앞부분에서도 밝혔듯이 문화예술사업은 멀리 내다보고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한 해 재단이 펼친 사업의 대부분은 더 나은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2022년에는 여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가족뮤지컬 <종이아빠>



시민 참여 동반사업



자동차 극장



<아미마을> 그림책에 실린 김지현 작가의 그림.
하루 중일 아미마을 마을회관에 모여 놀고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이
저녁이 되어 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야기 들. 여주 사람, 여주 문화

- 18 **여주인**
추연당 이숙 대표
경기실크 이우린
숲마루동원 이하정 농부
- 30 **예술 교과서를 펴고**
일상이 곧 예술이 된다면
당신이 한 권의 그림책이 되듯
- 34 **여강길 이야기**
마암에서 나타난 두 마리의 용

- 38 **이 한 장의 사진**
그시절 여주, 그곳
- 40 **테마 여주 기행**
발길과 손길로 돌에 새겨진 사연들
- 46 **세종 이야기**
조선의 하늘을 가진 세종의 꿈, 오늘에 되새기다

맛있는 음료 '추'와 인연 '연'이 만나니

추연당 이숙 대표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다. 더러는 술이 사람들을 부르기도 한다.
“자네 집의 술 익거든 부디 날 부르시소”라는 조선 후기 문신 김성최의 시조도 있지 않은가.
술로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한다는 추연당의 이숙 대표도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려 했던 우리의 문화를 전하려는 마음이 크다.



01

01 전통주 효모

02 추연당이 생산하는 전통주

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거
죠. 그때 그들은 공짜 술이니 무작정 좋아서 '맛있다', '그 손
참 대단한 손이다'라는 칭찬의 말로 저를 한껏 추켜세우죠.
그럼 저는 황홀경에 빠지고 맙니다.”

이미 동무 여럿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숙 대표의 얼굴
에 화색이 돌며 웃음이 절로 배어 나왔다. 그녀는 말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술을 나누는 것이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해
요. 그래서인지 제 술을 먹은 사람은 저와 인연이 쉽게 끊어
지지 않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술을 나누
면 만남이 이어지니까요.”

여주의 쌀과 물, 공기로 탄생한 여주의 술

그리하여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길에 자리한 양조장 이름을
'추연당'이라고 지었다. 맛있는 음료 '취(醜)'자에 인연 '연
(緣)'자. 이름하여 '맛있는 음료로 인연을 맺은 집'이라는 뜻
이다. 옥편을 뒤적이며 이숙 대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자를 찾아 지은 이름이란다. 어찌 보면 세상 모든 만남이
놀라운 인연이다. 문득 이숙 대표가 이곳 여주 땅과 맺은 인

술은 나눠야 제맛이죠

어른들 몰래 꼬들꼬들한 고두밥 훑쳐 먹는 재미는 어린 시절
이숙 대표에게 최고의 낙이었다. 술을 짜내고 남은 술지게미
를 화로에 지져 먹는 맛은 또 어떠한가. 술지게미만 먹어도
취해 푹아떨어지기 일쑤였지만 술 빛는 날만 곱았다.

“집에 술광이 따로 있었어요. 1년 내내 제사가 끊이지 않는
종갓집의 큰 살림을 도맡으셨던 할머니는 술광에 늘 술을 가
득 채워놓으셨죠. 제사상에 올릴 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 할아버지는 어린 저를 위해 술광에 오르기 좋도록 단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술독에 귀를 대고 뽀글뽀글 소
리가 올라오는 걸 가만히 듣곤 했죠.”

술에 대한 이숙 대표의 추억은 정이 넘쳐 출렁이는 술잔처
럼 차고 넘친다. 가을걷이가 끝날 무렵이면 앞마당에서 풍악
을 울리며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인심 좋은 할머니는 동
네 사람들을 위해 술광을 활짝 열고 그해 담은 술과 떡을 대
접했다. 그래서 술은 때마다 일부러 넉넉히 빔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술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며 보낸 유년 시절이
있기에 이숙 대표에게 술은 나눔이다.

“술이 익으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해서 사람들과 나눠야죠.
어찌 혼자 먹고 말겠어요. 술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

02





03

03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여주는 술 빛기에 제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숙 대표

04 이숙 대표는 여주의 쌀과 물, 공기로 빚은 술 이름에도 여주를 담았다.

가 떠오르기도 해 술을 배울 때쯤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즐겼죠.”

이쯤에서 드디어 하고 많은 곳 중 여주에 추연당을 연 이유를 물어봤다. 사실 이숙 대표의 여주 사랑은 술 사랑 못지않다. 여주 쌀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이며, 추연당의 증류주 이름을 여주의 돌레길인 여강길에서 따 소여강(소주+여강)이라 짓고 코스별 색깔이 다른 여강길에서 영감을 얻어 도수별로 파란색, 초록색, 금색으로 라벨 색을 달리했다. 여주의 쌀과 물, 공기로 빚었으니 이름에도 여주를 담고 싶었던 것. 또한 세종의 고장인 여주를 알리고자 ‘이도’를 상표출원해 육포와 정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술도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쌀로 술을 빚는 사람이니 당연히 좋은 쌀이 있는 여주에 터를 잡은 거죠. 여주 쌀만의 감칠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주가 세종대왕을 비롯해 문화적인 이야기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일종의 문화산업이니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여주는 술을 빚기에 제격이죠.”

술 익으면 놀러 오세요

추연당의 전통주는 모두 손으로 만든다. 그중 고문헌의 청주 제조법을 오양주(다섯 번 담금) 방식으로 재현한 ‘순향주’는 여주 쌀과 우리 토종밀인 앓은뱅이밀로 만든 누룩, 지하수로만 빚는다. 그리고 100일간의 발효와 숙성을 거쳐 완성된다. 순향주는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손막걸리인 ‘백년향’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연당의 전통주가 국내 최고 권위의 술 품평회에서 2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쥔 셈이다. 때마침 이러한 영광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던 이숙 대표의 마음을 다잡아주었다. “우리나라에도 귀한 술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주의 땀쌀로 오양주에 도전했는데 1년 동안 원하는 맛이 나오지 않아 만드는 족족 폐기했죠. 종일 가까이서 살피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집도 서울에서 여주로 옮겼어요. 순향주는 이리도 어렵게 완성된 술인데 드디어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사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추연당과 순향주, 백년향, 소여강이 점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이숙 대표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는 이들은 또 있다. 어느 여름날 목을 축여야겠다고 대뜸 막걸리 한 사발을 요구하던 농사꾼 이웃들. 그해 가을이면 문 앞에 무며, 양파며, 찹쌀 같은

수확물이 무심히 놓여 있곤 하니 이러한 맛에 이숙 대표는 매일 술을 빚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울려 살아야죠. 술도 그래요. 술을 마시려면 잔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박재국 도예가에게 부탁해 전용 잔과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들과의 협업뿐 아니라 여주 시민들과도 함께 술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숙 대표의 바람은 이미 싹을 틔웠다. 2021년 9월 여주세종문화재단과 함께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시상식을 개최한 것.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본 품평회에는 195건이 접수돼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 가양주에 대한

일반인의 열띤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덕분에 첫 대회를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어려웠겠죠. 앞으로 여주의 특산물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험 마을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전통주를 비롯해 쌀, 고구마, 땅콩 같은 먹거리에 문화유적지, 트레킹 코스, 도자기 체험 등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여주를 거쳐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려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일가견이 있는 추연당의 술이 각지의 사람들을 여주로 초대하는 날이 그려진다. 그날엔 온 마을에 술 익는 향이 진동하며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04





01

여주 잠사업의 산증인

경기실크 이우린

1960~1980년대 여주는 경기도 누에의 25%를 생산할 정도로 국책사업이었던 잠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잠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큰 축이었고, 여주 4,000여 가구의 수입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실크가 있다. 1963년부터 경기실크에 몸담았던 이우린 씨는 잠종장 잠업 기술 수료생에서 경기실크 관리자가 되기까지 경기실크와 평생을 함께했다. 잠업 분야의 산 역사이자 잠업 부흥기를 이끈 선구자. 이우린 씨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본다.

잠업이 외화벌이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우린 씨는 1942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서 태어났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가 잠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군대 제대 후부터였다. “제대하고 나와서 잠업 쪽으로 연관이 된 이유는 돼지를 집에서 키우고 그러면은 분노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뿔나무밭에 주고 이러면은 뿔나무 성장에도 좋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그 경기도 잠업시험장에서 잠업 기술 연수를 받게 됐어요. 그때가 한참 잠업이 부흥되는 그 시절이거든요. 잠업이 외화벌이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농촌진흥원에서 잠업 기술교육을 받은 이우린 씨는 1967년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에 입사했다.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는 경기실크의 전신으로, 1963년 여주 하리에 ‘경기제사공



02

업주식회사 부설 경기 잠업연구소’와 ‘한국잠사기계주식회사’를 열었고, 1970년에 경기잠업연구소 직조공장을 세웠다. 1975년에는 ‘경동제사’로, 1982년에는 현재 알려진 ‘경기실크’로 이름을 바꿨다.

입사 후 1970년대 이우린 씨는 생사 품질 향상에 성과를 거둬 무주에서 진행된 생사 품위 향상 관련 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다. 수상을 계기로 과장으로 진급도 했다. 사실 그의 진급 뒤에는 각고의 노력이 숨어 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스스로 자기 계발 3년 계획을 세워 땀 흘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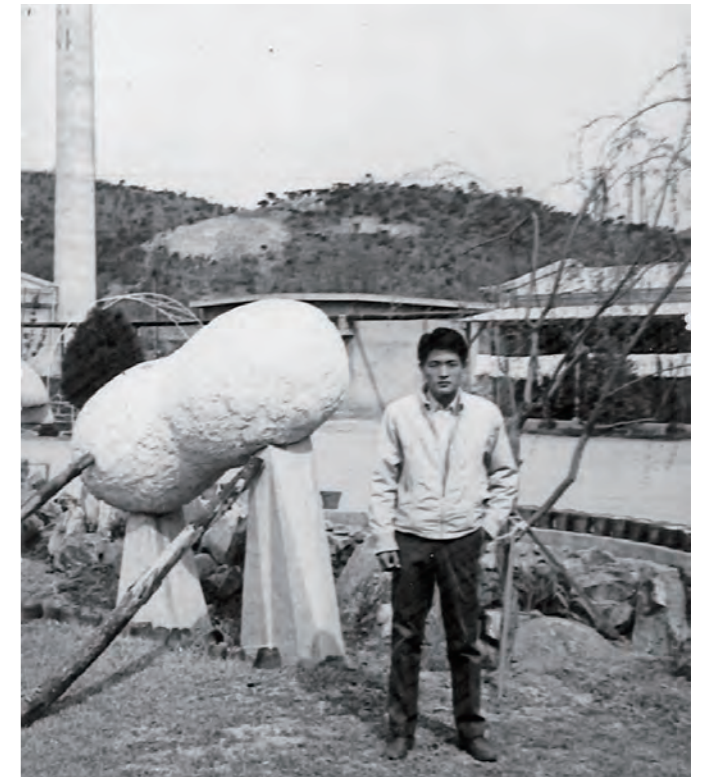
“세미나를 발표하려면 원고를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차트도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잘했나 봐요. 발표를 하고 막 이렇기 시작했죠. 내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세미나 덕분이예요. 세미나 발표 덕분에 사장이 인정을 하고 나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71년도에 군수 월급이 3만 원인가 뭐 아마 그 선이었던 거 같아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받고 일했었으니까 신이 나긴 나더라고요.”

이우린 씨처럼 1970년대 중반 경기실크도 이른바 전성기였다. 수출 백만불을 달성하고 경기도 잠업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다. 이우린 씨는 매사에 목표를 세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애썼다. 예를 들어 A등급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 실 켜는 기술부터 온도 관리, 건조 시간 늘리기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해 기어코 2A 수준으로 높여 수출을 성사시켰다. 게다가

3A 수준까지 높여 사장에게 격려금도 받고 승진도 했다고. “고치를 말리는 거부터 잘해야 곱팡이가 안 납니다. 견전을 잘해야죠. 실의 상태를 보는 걸 사조반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450m를 감아가지고 사조반을 보면 무늬가 똑같으면 실이 잘 켜져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하얗고 어떤 데는 거무스름하고, 거무스름한 데는 실이 가늘다는 얘기거든요. 무늬가 고르지 않으면 검사에 나와요. 사조반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소절이 있고 또 대절이 있어요. 대절. 그러니까 큰 마디가 있어요. 소마디가 있고 큰 마디가 있어요. 소마디는 소마디대로 검사를 하고 큰 마디는 큰 마디대로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100점에서 페널티를 줘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0점 이상이라야지. 90점 이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자건의 기술도 있어요. 고치 삶아서, 삶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밥 짓는 것도 기술 아닙니까.”

01 평생 '경기실크맨'으로 재직했던 이우린 씨
02 1971년 농수산부장관상 수상 장면
03 이우린 씨가 제작한 누에고치 조형물 앞에서

03





04

- 04 경기제사 청평 공장
- 05 옛 경기실크 공장 부지
- 06 자동조사가기 있는 옛 경기실크 공장 내부

여주 세종병원 있는 데까지 다 뽕나무밭이었거든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이우린 씨는 1970~1980년대 청평, 괴산, 음성, 용인 등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부장직으로 근무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해외 잠업 기계 설치와 기술 지도를 위해 네팔, 베트남, 일본, 이란, 태국 등 해외 각지로 출장을 다녔고, 베트남에는 3개월간 머물기도 했다. 그렇게 전국은 물론 세계를 돌며 잠업을 경험했지만 유독 여주의 잠업 생산량이 좋았다고 평가한다.

06



“제 생각에는요, 여주 토양이 사질 양토거든요. 사질 양토. 물 빠지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뽕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잠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저쪽 여주 세종병원 있는 데까지 다 뽕나무밭이었거든요.”

여주의 좋은 땅이 잠업을 성하게 했다면 그렇게 발전한 잠업은 여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우린 씨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모멘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청평도 마찬가지예요. 옷 가게도 생기고, 화장품 가게도 생기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여자들이 다 옷 안 입고는 못 사니까. 그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더라고요. 제가 시장통 가면은 아모레 상회도 생기고, 한국화장품 상회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마 여주 시내에서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 만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업은 1980년대부터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우린 씨는 전성기부터 쇠퇴기까지가 어제 일인 양 눈에 선하다.

“71년도 후반기부터 소위 살맛 나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 하고 애들은 또 뭐 옷도 잘 입혔죠. 규모도 직원이 300여 명일 적도 있었어요. 근데 80년 후반 되면서 안 되기 시작을 하다가 90년도 되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 제사 공장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도 실크 계통은 10년은 괜찮았어요. 제가 들어와서 10년 동안은 괜찮았다고. 한국 경제에도 그런 IMF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나중엔 중국 실을 사다가 기계를 가지고 연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여기 연사 기계를 갖고 나가서 ‘오학’에서 강 씨가 공장을 했어요. 거기서 하다가 개성공단에서 연사를 생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차 개성공단이 문을 닫잖아요. 다 철수를 하고 말았지요.”

1960년대 정부의 잠업 장려에서 시작해 1970년대 호황기를 맞았던 잠업이 1980년대 석유파동과 중일 국교 정상화 및 환경오염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잠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계, 자동조사가기를 개발한 것이다. 1996년에 설치한 신형 자



05

동조사가기는 현재 경기실크 공장에 남아 있다. 작동을 시험하다가 장갑이 쓸려 들어가 손가락을 다치게 만든 기계다.

“제가 기계를 만든 사람인데요, 우리 여기 신형 자동조사가라고 이것을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기계 만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모델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회장님이시죠.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게 94년도에 개발해가지고 96년도에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 끝에 건물에 있거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이우린 씨는 수십 년 동안 잠업 분야에서 관리자 역할로 국내의 기계 설치 기술을 지도하는 데 힘썼으며 경기실크 주식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일했다. 그는 현재 은퇴했지만, 잠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뽕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잠두봉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뽕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그늘을 지게 하고 뭐 이런...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 보면서 이게 문화시설 쪽으로 잠업하고 관계된 것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해놓으면은... 원주시 호

저면 고사리에도 누에 관련 공간이 있네요.”
잠업 멘토로서 이우린 씨를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 경기실크 역사의 산증인, 여주의 경기실크가 한국의 잠업 생산 거점이라 할 만큼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공헌한 것을 기억하는 이. 그가 오래도록 그 눈부셨던 역사를 증언해주길 기대해본다.

*이우린 씨 이야기는 《구경기실크 유희공간 문화재생산업 아카이브》와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 《여주를 담다 삶을 기록하다》 산업시설 관계자 편에서 발췌·수록했습니다.

농사로 건강해진 마음 지역사회 관심으로 환원

숲마루농원 이하정 농부

하얗게 만개한 꽃들이 맞아주는 하우스 안은 이미 봄이다. 한겨울에 꽃 무리를 보는 호사라니. 이것이 바로 여주시 오금동에서 7년째 딸기를 키우는 이하정 씨의 기쁨이다. 스스로를 작은 농부라 칭하는 이하정 씨는 농사를 시작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추위를 잘 이겨낼수록 단맛이 강해지는 딸기와 함께 이하정 씨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답니다

“딸기 농사의 좋은 점요? 딸기 너무 예뻐잖아요. 이렇게 한겨울에 예쁜 꽃도 볼 수 있고요. 딸기의 달콤한 향을 맡으며 예쁜 딸기를 손으로 직접 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요즘 원예 치료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파리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나 꽃대가 나와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답니다.”

그래서 늘 딸기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준다는 이하정 씨. 매년 똑같은데도 어찌 그리 또 새로운지.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르듯 하다며 딸기밭을 바라보는 이하정 씨 얼굴에 흐뭇한 ‘엄마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딸기 농사를 짓기 전 서울에서 해운업체에 다닐 때도 해도 지금과는 표정이 달랐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미 없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하정 씨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일찍이 귀농해 여주에서 딸농사를 짓고 있던 남편을 따라 막연히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열혈 청년 농부들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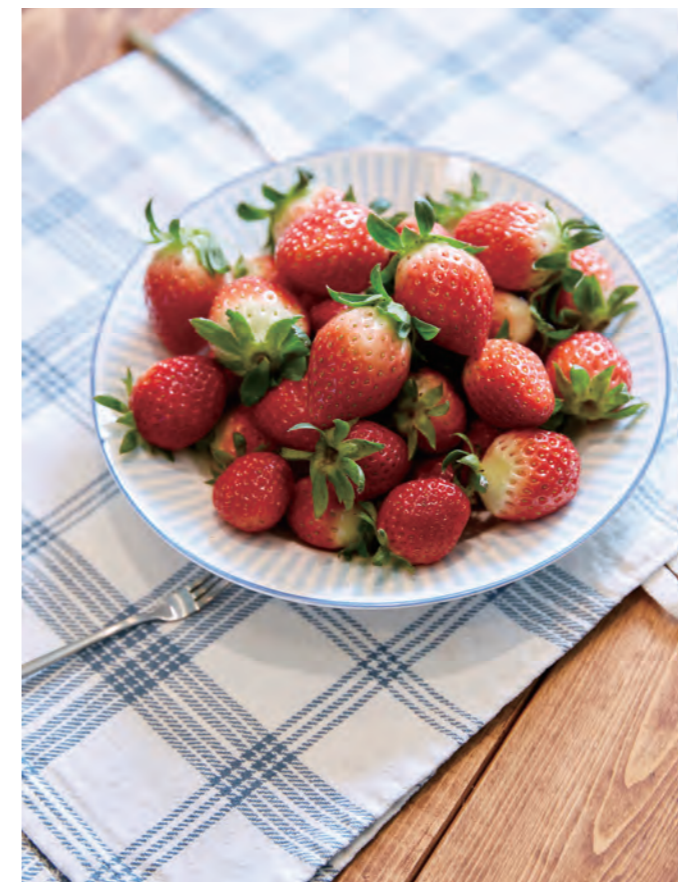


02

01 여주 딸기는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단단히 당도를 응축하며 서서히 익어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룬다.

02 숲마루농원에서 방금 수확한 싱싱한 딸기

01



열심히 귀농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딸기도 그저 때가 맞아 시작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가지 농사를 많이 하는데 당시 가지 모종을 심기에는 늦은 때였죠. 대신 딸기를 시작할 때라는 말을 듣고 딸기 모종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딸기 농사의 시작은 다분히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한 후에는 귀농 학교에 다니고 작목반 활동을 하며 행여 잠깐 한눈팔아 1년 농사를 망칠세라 애지중지 받을 뉘었다. 어느 날은 시대에 내려가던 중 딸기로 유명한 경남 산청으로 방향을 틀어 무작정 눈에 보이는 딸기 하우스 농가의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 운 좋게도 ‘찜한’ 농가에서 지금까지 멘토로 모시는 80대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30년간 딸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제껏 농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쭙보곤 합니다. 농사에 대해 배운 것도 많지만, 함께 딸기를 따고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두 분이 함께 농사지으며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로 자라는 작물은 없어요

이제 이하정 씨 부부도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다. 딸농사를 줄이고 딸기에 집중하게 된 것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 딸기가 부부 둘이 함께 일을 나눠 키우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틈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결순을 따주고 꽃 정리를 해야 하는데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 이하정 씨의 역할이 제법 크다.

사람들은 딸기 농사라 하면 수확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절로 자라는 작물이 어디 있겠는가. 9월경 모종을 심으면 11월 전후로 이하정 씨가 ‘텃줄’이라 부르는 런너(자묘)라는 줄기가 나오는데, 그중 튼튼한 런너를 잘라서 한쪽 밭에 심으면 뿌리도 나고 잎도 난다. 뿌리를 내린 런너들은 다

03 재배 기간 내내 결순과 줄기, 꽃들을 정리해줘야 한다.

04 농부가 되길 잘했다고 말하는 이하정 씨

05 숲마루농원에서 수확한 딸기로 만든 수제 딸기 잼

03



시 본밭에 옮겨 심어 키워야 한다. 수확은 11월 말부터 조금씩 시작하는데 재배 기간 내내 결순을 정리하며 돌봐야 하기에 수확 전에도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수확은 길면 5월까지 이어지며, 4개월간 모종을 키우는 시기와 겹쳐 흔히 딸기 농사를 16개월 농사라 한다. 그러니 1년 내내 손을 놓을 새가 없는 셈이다.

초보 농부 시절, 재배는 어떻게든 배워가며 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수확 이후였다. 때가 되니 딸기는 빨갭게 익어가는데 수확해도 막상 어디에 팔아야 할지 판로가 막막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찬스를 이용했다는 이하정 씨.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도움을 청했죠. 지인들이 직접 구입하거나 아는 분을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새벽부터 딸기를 따 포장하면 오후 3~4시가 됩니다. 그럼 차에 싣고 서울, 분당, 양평, 안산 등 어디든 돌면서 직접 배달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가 넘기 일쑤였어요.”

하루는 사람이 많이 찾는 식당 앞에 딸기를 팔기 위해 좌판을 벌인 적도 있다. 어디서 그런 억척스러움이 나왔는지. 우연히 지나다 그 모습을 본 지인이 깜짝 놀라 쫓아왔다. 하지만 출하하고 돌아서기 무섭게 한 움큼씩 달린 딸기를 보고 있노라면 농부 된 도리에서 그날 수확한 딸기는 묵히지 말고 어떻게든 팔아야 했다. 그렇게 집집이 딸기를 배달하던 일도 이제 옛날 일이 됐다.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생협, 학교급식 등 제법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것. 하지만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몇 집은 올해도 직접 찾아볼 생각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 숲마루 딸기를 꼭 먹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딸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구입해온 분들인데 신선한 데다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 다른 딸기는 못 드시겠다네요.”

이제야 저의 본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사실 여주에는 딸기 농가가 많지 않다. 논산, 산청 등 남부 지역보다 수확이 늦은 데다 여주에서 한창 수확할 시기인 3-5월에는 딸기의 단가가 떨어져 좋은 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주 딸기는 남부 지역에 비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단단히 당도를 응축하며 서서히 익어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룬다. 지난 늦은 봄 딸기가 끝물에 접어들 무렵, 이하정 씨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협의 소비자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올봄 내내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어 감사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농부의 1



04



05

년 고생은 눈 녹듯 녹아내렸다. 이하정 씨가 농부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제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흠을 만지며 치유된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 전엔 지금과 180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제야 저의 본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건강해진 이하정 씨는 딸기도 건강하게 키운다. 시작할 때부터 무농약으로 지어 이듬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자연스러운 땅의 양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토경 재배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 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생협과도 거래를 트게 된 것이다. 11월에는 여주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 조금씩 납품을 시작했다.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여주에도 친환경 딸기 농가와 로컬푸드 매장이 더욱 많이 생기기기를 바란다는 이하정 씨는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 지역사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자유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시민 학부모 모임인

‘너븐타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주 청소년들은 방과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이예요.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평대회를 진행하고 있죠. 가끔 반찬 봉사활동에도 나가고 있어요. 농부라고 농사만 짓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또한 농사를 짓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농사를 지으며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2020년부터는 농사를 시작할 때 선배 농부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른 새내기 농부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다. 딸기 농사를 시작한 이웃의 한 청년 농부의 멘토가 된 이하정 씨는 2021년 첫 수확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중이다. 어느덧 멘티에서 어엿한 멘토가 된 것이다. 모두 농부의 삶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들이다.



01



02

일상이 곧 예술이 된다면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

2018년 개관한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은 여주한글시장 내에 위치해 있다. 상인들의 쉼터가 된 것은 물론 아이들과 시장에 들른 어른신까지 사로잡으며 어느새 여주한글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화 아지트'로 불린다. 이 공간의 소소한 모든 것이, 여주 시민들의 일상이 예술이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며 천만 가지 상상이 펼쳐지는 문화 아지트를 들여다보자.

여주 시민의 발길 붙잡는 토닥토닥의 매력

토닥토닥그림책 작은도서관(이하 토닥토닥)은 마을 교육 공동체 '여주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사립 도서관이다. 그들은 '아이들과 무엇으로 재미나게 놀까?' 고민하다가 그림책으로 놀아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공간이 없어 공유 공간인 문화집현전에서 동아리처럼 활동하다가 여주한글시장 상인회에서 공간을 내주어 자리를 잡게 됐다.

토닥토닥의 이용자는 시장 아이들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 어른신까지 다양하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수업 끝난 어린이들이 자주 들러 머무르고, 시장에 들렀다가 잠깐 짬을 내 그림책을 보거나 쉬러 오시는 어른신도 많다. 30평 정도의 크기 않은 공간이지만 5,000여 권이 넘는 장서가 있는 데다, 아기자기한 전시가 수시로 열려 여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토닥토닥이 그림책을 도서관 얼굴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시간 동안 일정한 서사로 꾸러진 이야기를 읽고 나누기엔 '그림책'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토닥토닥은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과 지역 연계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세대와 만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토닥토닥 김동헌 대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림책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른신들은 그림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과 '자신이 지나는 세월'을 발견하며 남다른 감동을 느끼신다고 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아하고요.”

무언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곳!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다양한 여주 시민이 토닥토닥을 찾는 만큼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는 한 가

지 원칙이 있다. 모든 활동을 여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는 '원칙'이다.

“동아리 활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은 아이나 어른신 모두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학교나 기존 교육 환경에서는 수동적일 수 있는데, 토닥토닥에서는 달라요. 스스로 문화 기획자가 돼 프로그램을 짜고 직접 실행해나가요. 이곳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도서관 운영 철학이 '경쟁하기 않기, 가르치려고 잔소리하지 않기, 평등하게 대해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토닥토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성인이나 어른신들 역시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문화예술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공도서관과 토닥토닥의 차이점이 아닐까? 토닥토닥에서 여주 시민들은 향유자를 넘어 생산자가 된다. 토닥토닥은 공간과 책을 내주고 때때로 도울 뿐이다.

처음 토닥토닥을 방문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기획의 '맛'을 느낀 이용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데리고 왔다. 토닥토닥은 그렇게 특별한 홍보 없이도 '사람들만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덕분에 여주시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주목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시장 내를 뛰어다니며 한글 자음·모음 카드를 활용해 문제의 답을 맞추는 '시장 런닝맨'이나 비대면 시대에 QR코드를 활용해 진행한 방 탈출 게임 등은 토닥토닥의 청소년 활동가와 동아리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 어른신들 또한 '은빛유랑단' 동아리가 주축을 이뤄 인형극 공연과 북 콘서트 등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시민 그림책 리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시민들이 직접 그림책을 골라 인스타 라이브, 밴드 라이브 등을 통해 그림책을 소개해요. 처음에는 '포

스트 잇 서평'에서 시작됐죠. 다음 사람이 댓글을 달며 리뷰를 완성해가는 방식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소개하고 나눈다는 걸 너무 재미있어 하더군요. 아이들의 표현이 어른과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주 시민에게 토닥토닥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무언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곳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다. 여주 시민들이 토닥토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토닥토닥은 앞으로도 여주 시민이 주축이 되는 활동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동헌 대표는 '요일 관장'을 시도하고 싶다고 했다. 요일마다 시민들이 관장 역할을 하면 어린이 관장, 청소년 관장 등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토닥토닥은 여주 시민들에게 더없이 편하고 자율적인 공간입니다. 뒹굴뒹굴하며 그림책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요. 그러다 좋은 기획거리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함께 힘을 보태 '예술교육활동'을 하며 '문화'를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움이 일어나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시민성이 생깁니다. '공감 능력'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요? 전 이것이야말로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시민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주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01 고정순 그림책 작가 원화전을 관람하는 어른신들
02 토닥토닥에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어른신들
03 청소년 '책엔니' 활동가들이 기획하는 그림책 놀이
04 시민 그림책 리뷰 라이브 장면



03



04

당신이 한 권의 그림책이 되듯

책배여강

여주에는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림책을 통해 잊고 지내던 자신과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권의 그림책이 된다. 강사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며 그림책을 만드는 책배여강의 박혜진 대표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01



02

그림책이 어르신들의 삶과 만났을 때

책배여강은 2012년 여주의 인문학 강사 모임에서 시작했다. ‘책배’는 책을 실은 배, ‘여강’은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뜻한다.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책배여강은 멀리서도 보이도록 등불처럼 반짝 커진 책으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모임이다. 인문학 및 예술 전공자들이 모여 다양한 공부를 진행하는 이 인문 공동체는 2015년부터 직접 여주 곳곳의 마을을 다니며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때마침 경기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선정되면서 어르신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죠. 2019년부터는 여주세종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읽어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박혜진 책배여강 대표)

하고 많은 책 중에 왜 하필 그림책이었을까? 박혜진 대표는 그림책이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고 말한다. 글이 그림과 어우러져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 함께 나눔 이야깃거리도 많다는 것이다.

“처음 그림책을 가져갔을 땐 애들 보는 걸 왜 가지고 왔느냐며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꾀꿍이 들고 갔어요. 어르신들이 잘 아는 옛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그림책, 어린 시절이나 고향이 떠오르는 그림책이었죠. 등글게 모여 앉아 읽어드리면 처음에는 싫어하던 어르신들도 어느새 집중하고 계세요. 이야기에 빠져서 함께 웃고 나쁜 인물을 욕하다 보면 경계하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그럴 때면 어르신들은 마음 한 자락을 슬며시 보여주시니까. 그림책과 어르신들의 삶이 만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강사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며 만드는 ‘인생 그림책’

수업은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그림책을 가져가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때때로 떠오르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맞춰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크게 어르신들의 이야기 모으기, 모인 이야기에 맞춰 그림 그리기, 그림책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80세 이상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 중에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먼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강사들이 받아 적어 글로 만들고, 그 이야기에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생 처음 그림을 그려본다는 어르신이 많아요. 우리 강사들은 그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려낸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책배여강은 그렇게 수업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그림과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펴내고 있다. 그림 전시회와 북 콘서트도 진행하는데 이때마다 어르신들도 함께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전시회와 북 콘서트로 이어진다니, 어르신들에게는 각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우리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 사람과 결혼해 평생 그곳에서만 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전 처음 그림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북 콘서트가 열리면 어르신들을 모셔오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북 콘서트에 참여한 자제분들 중에는 어머니의 책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여주는 3-4년 전만 해도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여러 문화예술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제 여주에는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여주의 문해 교육사들은 책배여강이 만든 그림책을 어르신들의 한글 교육 때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책을 보고 문의하는 경우가 생겼다. 박혜진 대표는 그럴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 한다.

“한 해 한 해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없어요. 다만 어르신들을 교육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는 자세는 경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역시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여강이 묵묵히 흘러가듯 책배여강은 앞으로도 해오던 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주 시민 전체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그림책을 가지게 될 때까지 문화예술



03



04

- 01 어르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
- 02 책배여강 강사의 지도 아래 삼합리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 03 송촌3리 아미마을 작품 전시회
- 04 직접 그린 꽃 그림에 수를 놓고 계신 어르신
- 05 책배여강과 함께하는 삼합리 어르신들

전달자로서 역할을 지속하는 데 있다. 여주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어르신 모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또 있을까?



05



마암에서 나타난 두 마리의 용

여강 수신(水神) 설화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땅, 물에 신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제를 올렸다. 농사가 잘되기를, 수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든 풍습이다. 여강에도 수신(水神)에 관한 여러 설화가 있다. 강을 따라 전해 내려오는 수신 이야기를 만나보자.

가장 오래된 여강 수신, 말(馬)

신라 경덕왕 때 황마(黃馬, 누런 말)와 여마(驪馬, 검은 말)에 관한 기록이 있다. 마암 바위 아래에 있는 굴에서 황마와 여마가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는 설화인데, 이 설화 때문에 여주의 지명을 각 말에서 한 글자씩 따온 황려현(黃驪縣)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당시 황마와 여마에 대한 설화는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다. 또 다른 설화 속에도 황마와 여마가 등장한다. 재밌는 것은 경덕왕 때의 기록처럼 말들이 마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한 노인이 여강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멀리서 손짓하며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다. 노인은 주위에 사공이 없어 대신 배를 타고 여인에게 갔다. 그런데 여인의 뒤로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게 아닌가. 노인은 서둘러 여인을 배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치더니 강가 커다란 바위에서 누런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났다. 여인은 누런 말을 타고 달리고, 그 뒤를 따라온 남자는 검은 말을 타며 달려갔다. 황마와 여마가 달려간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었다. 이때부터 말이 나타난 강가 바위를 마암이라 부르게 됐다.

또한 신록사와 관련된 설화에서는 머리는 용, 몸은 말인 ‘용마’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1. 고려 고종 때 신록사 건넌마을에 사나운 용마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승려인 인당대사가 나타나 용마의 고삐를 잡아챘다. 그러자 길길이 날뛰던 용마가 순해졌다. 그 후 인당대사의 신력을 뜻하는 ‘신(神)’ 자와 굴레 ‘륵(勒)’ 자를 써서 신록사가 됐다.

2. 고려 우왕 때 마암 부근에서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자,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를 가지고 용마를 다스렸다.



신록사 삼층석탑

용마 역시 ‘마암 부근에서 나온 신령한 말’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앞서 살펴봤던 황마와 여마의 변형이 아닐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용마는 수해를 빚대어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에 사는 신이 노하면 강물이 범람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수신에게 제를 지내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인당대사, 나옹선사와 같은 승려의 도움으로 용마를 제압했다는 것은 수신제가 불교를 통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이태한 원작자에게 있으며, 원작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1

나옹선사와 신록사, 그리고 용의 모습을 한 수신

위의 고려 우왕 때 설화에 따르면 용마를 다스린 인물로 나옹선사가 등장하는데, 이 나옹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따라가면 용의 모습을 한 수신에 대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나옹선사는 고려 말의 승려로, 회암사에 머물다가 왕명을 받고 밀양의 형원사로 가던 중 잠시 들렀던 신록사에서 입적했다. 나옹선사가 입적할 때 신록사의 승려인 달여가 말처럼 생긴 여룡(驪龍)이 여강으로 들어가는 꿈을 꾀다. 여룡은 검

은 용을 뜻한다. 말처럼 생긴 검은 용이라고 했으니 여마의 변형이라 볼 수 있다. 여강 수신은 말에서 용 머리를 한 말로, 나아가 용으로 그 모습을 바꿔가며 설화로 전해진다. 수신에 대한 설화 중 용이 등장하는 것은 또 있다. 조선을 세우는 데 기여한 무학대사와 관련된 설화다. 무학대사가 여주 신록사에 가려는데 태워주는 배가 없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주 이포 사공 최 씨가 배를 태워 주겠다고 했다. 최 씨의 배는 뜻이 없는 낡은 나룻배였다. 한양에서 여주로 가는 뱃길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 사공이 애써 노를 저었지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한



02

* 여강 수신 이야기는 《삶이 흐르는 여강 1, 여강길 이야기》 중 3부 중류길 이야기 -여강의 신은 말일까, 용일까? 편에서 발췌 수록했습니다. 《여강길 이야기》는 여강길 주변의 이야기 자원을 수집 발굴해 여강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여강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기사에 수록된 작품은 여주의 젊은 작가인 이철재의 작품입니다. 이철재 작가는 여주의 강, 여강이 품은 전설에 관심이 많아 신비롭고 독특한 전설을 타투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03



- 01 마암 전경
- 02 HAND PEACOCK, 2020. 펜화, 30 X 40 Cm
- 03 심연의 손, 2020. 펜화, 수채물감 30 X 40 Cm

이 더 강해졌고 여강 설화 속 수신의 모습도 용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여주는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를 크게 입었던 마을이기에 수신에 대한 설화가 많다. 신라 경덕왕 때의 황마와 여마, 그 이후 머리가 용으로 변한 용마, 나옹선사가 입적한 이후 나타난 두 마리의 용까지. 여강을 지키는 수신은 그 모양을 바꿔가며 여주의 이야기 속에 항상 존재했다. 수신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연 앞에 겸손하고 간절했던 여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곳 그 시절 여주,

여주가 아름다운 것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이다. 여주의 곳곳을 아끼며 그곳에 진솔한 추억과 이야기를 새겨놓은 사람들. 그 옛날 그곳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본다.



꼬마 기차는 설렘을 싣고
수여선 여주역

수여선은 1930년 일제가 만든 협궤열차다. 수원, 용인, 이천, 여주를 오가며 일제강점기엔 쌀 수탈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 1972년까지 경기도민의 유용한 교통수단이 돼 주었다. 기차 폭이 좁고 객차 수도 적어 '꼬마 열차'로 불렸던 수여선. 기차도, 여주역도 작았지만 떠나고 돌아오는 설렘은 늘 커다랗을 것이다. 떠나는 역장님의 기억 속에도...



여주 멧쟁이 삼총사
여주대교

모처럼 멧을 내고 나간 친구들과의 날들이. 남한강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여주대교 앞에서 어찌 기념사진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멧쟁이 소리를 들으며 여주를 누볐던 친구들의 머리에도 이젠 서리가 내렸겠지.



손은 뒤로, 시선은 멀리
신륵사

예나 지금이나 신륵사는 여주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절이 산속에 자리한 것과 달리 신륵사는 강변에 자리해 찾아가기도 좋고 경치도 빼어났다. 절경에선 사진 촬영이 진리. 당시 사진을 찍을 때는 모름지기 먼 곳에 시선을 뒤편 멧 좀 아는 사람으로 꼽혔다.



01

발길과 손길로 돌에 새겨진 사연들

파사성·풍운원

단단한 돌에 인간은 수많은 염원을 새긴다. 유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돌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들이 새겨 있다. 오랜 세월을 건디는 돌처럼 오랫동안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새겨 있다.

위로는 하늘길, 아래로는 물길

파사성 - 국가 사적 제251호

파란 하늘 아래 파사성

인간의 구분을 알 리 없는 파사산은 여주시 대신면과 양평군 개군면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앞에는 남한강의 물 줄기인 여강이 지역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포보 전망대에서 조망하는 이포보와 휘감아 도는 여강의 모습이 이리 호방한데, 파사산 정상의 파사성에서 내려다보는 풍광

은 또 얼마나 장관일까? 남문 터 아래 파사성지 주차장으로부터 약 860m라는 풋말쯤이야 가벼이 지나친다.

파사성은 고대 파사국의 옛터라는 설도 있고, 신라 파사왕(재위 80~112년) 때 쌓은 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단지 이름이 같아 잘못 전해진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파사왕 재위 시절 이곳은 버젓이 백제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안에서 발견된 각종 유물이나 성을 쌓은 방식, 성문 형태 등에 비춰 신라 시대의 성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축성 시기는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6세기 중엽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청 지역에서 경기와 서울로 향하는 주요 물길인 남한강과 한강 이남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신라는 고역

01 파사성의 위에서라면 왜군의 침입을 감시하는 데 제격이었을 것이다.

02 바위를 깎아 새긴 마애불

02



스럽게 산꼭대기까지 돌을 날라 성을 쌓았으리라. 사실 정상까지 그리 긴 거리는 아니지만 오르는 내내 경사 길이어서 차마 위는 올려다보지 못한 채 마른 숨만 가쁘게 내쉬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 파사성의 끝자락과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다행일 수 없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절경

파사성의 늪름한 형상을 한눈에 담고자 한다면 이쯤에서 숨을 고를 겸 잠시 발을 멈추는 것이 좋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널찍한 장방형 돌덩어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폭 3.2~7.2m,

길이 936m의 성벽은 발아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시간에 버금갈 많은 이들의 무게에 마모돼 길든 돌들은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벽에서 어느덧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르는 길이 됐다. 그런데 그 길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조금 전 목까지 차올랐던 거친 숨이 단번에 잦아들면서 ‘좋다’라는 감탄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눈앞에 펼쳐진 여강의 물줄기와 저 너머 보이는 무태산, 양자산, 주봉산의 광활한 절경 덕분이다.

실로 파사성 위에서라면 양평으로 향하는 여강과 마을 진입로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이 왜군의 침입을 감시하는 데 제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사성을 찾은 현대인에게는 잠시 사는 시름을 내려놓고 눈과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여주의 명소이다. 선조 23년 파사성 축성을 건의했다는 조선의 명재상 유성룡도 그 풍광에 감탄해 파사성 위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하지 않는가.

“파사성 위에 풀이 무성하고
파사성 아래에는 물이 등글게 굽어 돈다.
봄바람은 날마다 끝없이 불어오고
지는 꽃잎은 무수히도 성 모퉁이에 날린다”

파사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지어진 후 임진왜란 때 3년에 걸쳐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다시 쌓은 것이다. 그러다 무너진 성벽을 여주시가 1997년부터 보수해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 축성 이후 수차례 개축을 거치다 보니 옛 돌과 새 돌이 험거운 구석 없이 단단히 엮여 있다. 그 사이사이 작은 틈새는 지난 가을에 진 고엽들과 돌맹이들이 채우고 있어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됐다. 애초 성벽이 될 돌이었을 리 만무하나 아귀가 척척 맞게 얽히고설키 벽이자 길이 됐다.

그렇게 돌길이 된 성벽 위를 걷고 있자니 탁 트인 사방으로 보이는 여강과 여주 시내의 경관이 눈에 밝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 뒤와 옆을 돌아보게 된다. 그때 저 멀리 앞 산기슭에 작은 법당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궁금증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정상을 향해 길을 재촉하니 성벽의 촘촘한 돌들 사이에 사이좋게 뿌리를 내린 두 그루의 소나무가 보인다. 바로 파사성의 명물 ‘연인 소나무’다. 그 사이를 지나면

- 03 파사성은 신라 파사왕 때 쌓은 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파사왕 재위 시절 이곳은 백제의 땅이었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속설일 가능성이 크다.
- 04 성벽 위를 걷다 보면 탁 트인 사방으로 보이는 여강과 여주 시내의 경관이 눈에 밝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 뒤와 옆을 돌아보게 된다.
- 05 수많은 돌의 대향연이 펼쳐져 있는 풍운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의 진위를 따질 필요 없이 연인들은 사진을 찍는다. 나무 앞에는 ‘여강길’이라는 표지판도 있다. 파사성 길은 여주시의 도보 여행길인 여강길 중 8코스에 속하는 길이기도 하다.

돌의 굳건함이 주는 믿음

드디어 정상에 다다르자 성벽을 오르는 동안 동행이 됐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두 팀의 사진을 찍어줬다. 정상은 오르는 노고를 보상받는 곳이자 함께 기념하는 곳이다. 잠시 정상의 시간을 만끽할 터이다. 올라올 때는 남문 터를 통해 왔으니 동문 터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으나 성벽 보수공사 중이어서 아직 다니지 못한다. 대신 반대편 마애약수터라는 팻말을 따라갔다. 아마도 오르는 중에 봤던 법당의 궁금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빼격 거리는 나무 계단을 조심히 내려갔다. 산길을 따라 200여m를 걸으니 많은 이들의 바람이 세심하게 쌓아 올린 돌탑이 보인다. 그리고 그 돌탑을 도니 드디어 법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압권인 것은 뒤편 거대한 암석에 새겨진 마애불. 고려

시대의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은 바위의 앞면을 깎아서 선으로 새긴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171호이다. 그 커다란 바위를 반듯하게 깎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위에 마애불을 새긴 불심은 헤아리기 어렵다. 불현듯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돌의 견고함은 이래저래 쓰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파사성을 찾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사그라진 기억들이 풍화되는 곳 풍운원

바람과 구름이 노니는 정원

돌이라면 파사성 성곽을 가득 메운 돌들을 원 없이 보았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또 그렇지 않았다. 여주 금사면 전북리에 가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돌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풍운원’





06



07

- 06 풍운원은 여주 최고의 애석인 여경수 씨의 사택 정원이다.
- 07 이곳의 돌들은 모두 사연을 품고 있어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한마당을 이루고 있다.
- 08 버려진 것들이 애뜻해 마당을 가득 채우게 됐다.

문에 있던 돌이다. 이렇게 저마다 온 곳은 모두 다르지만 절묘하게 어우러져 풍운원의 어엿한 입구가 됐다. 이 밖에도 동숭동 옛 서울대학교 본관, 대원군의 별장인 석파정, 해방촌 이후락의 별장, 자유당 시절 부통령인 이기붕의 아들 이강국의 사랑채에서 가져온 주춧돌도 있다고 하니 가히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한마당을 이루었다 할 만하다.

누군가의 기억을 품은 돌

이렇게 돌이 기둥, 주춧돌, 계단 같은 건물을 짓는 재료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리는 비석이나 동상으로도 많이 쓰인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풍파에 쓸리기 마련이건만 인간의 짧은 소견에서 보면 유구하기 그지없으리라. 그래서 마당에서는 어느 초종교 충동문화가 세웠다는 공적비부터 경기도 모 대학교의 식수 기념비, 윤동주의 서시가 새겨진 비석, 광복 70주년 기념비, 헌법의 서문과 '상국설매(霜菊雪梅)'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글귀가 새겨진 바위까지 다양한 기억을 품고 있는 비석들을 만날 수 있다.



08

그중에는 석각가이기도 한 여경수 씨가 직접 새긴 글귀들도 있다. 한때는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을 텐데 인간의 변덕으로 쓰임을 잃으면 그냥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로 전락할 뿐이다. 철거되고 부서져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은 돌들을 하나둘 풍운원으로 거두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이렇게 마당을 가득 채우게 됐으리라. 여경수 씨는 버려진 것들이 애뜻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어쩌면 대단한 사건이 기록된 비석들보다 사사로운 기억을 품은 돌이 더 많을지 모른다. 멧돌이나 절구, 다듬잇돌, 구유처럼 돌은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풍운원에는 돌부처에 돌부처방, 그리고 돌탑과 돌다리까지 돌로 만들어져 앞에 '돌' 자가 붙은 모든 것이 모여 있다. 여경수 씨가 '돌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그런데 풍운원에는 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사연 있는 것이 어디 돌뿐이겠는가. 색이 바랜 곰 인형에, 이제 구닥

다리가 된 비디오카메라, 어디서 온 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왕소라와 옥외 소화전,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뺨꾸기시계 그리고 어찌해도 어울리기 어려운 에펠탑과 먼지를 뒤집어 쓴 어느 해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그러다 보니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엇을 만나게 되든 기상천외하다.

기다림의 시간들

마당 한편에는 깎이다 만 미완성의 사자상이 석장의 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안쪽 길가에는 아직 쓰지 못한 돌들이 쌓여 있다. 풍운원 밖에서 마당에 들어올 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정지한 돌에 둘러싸여 있어서일까. 시간의 흐름이 돌처럼 굳은 듯하다. 그때 어디선가 꽃가를 울리는 개울가의 물 흐르는 소리. 졸졸. 가늘지만 널찍한 바위를 쓸어내리며 물줄기가 흘러갔다. 시간이 다시 흐른다.



01

조선의 하늘을 가진 세종의 꿈, 오늘에 되새기다

세종의 천문학적 해안

바야흐로 우주개발 시대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우주 강국 중 하나로 우주로 향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실 한국은 과거 천문학 선진국이었다. 바로 세종 덕분이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만큼 천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쓴 왕도 드물다. 세종은 천문 사업에 왜 그토록 애썼을까? 세종의 위대한 천문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한글을 창제했고, 대마도를 정벌했으며, 집현전을 설치해 고급의 문헌을 수집하는 등 실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업적은 한글 창제에 견줄 만큼 당시로는 위대한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천문과 관련한 세종의 위업 중 하나가 이른바 ‘간의대(簡儀臺)’ 사업이다. 간의대는 경복궁에 지은 세종의 왕립천문대를 말한다. 간의대는 세종 대에 이룩한 과학기술의 핵심이자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천문대였다. 세종은 왕립천문대를 만들고 난 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으니 농사는 의식의 근원이고 왕정의 급선무이다”라고 했다. 유교적 민본주의의 중심에 농업이 있었고 그 배경에 천문학이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천문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종은 간파하고 있었다.

한글 창제도 그렇지만 천문학의 발전 또한 세종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만큼 천문학을 발전시키려고 애쓴 왕도 드물다. 세종은 천문 사업에 왜 그토록 애를 썼을까? 당시 국가사업으로서 천문 사업은 그리 시급한 것도 아니었고, 사업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었다. 더군다나 당장 백성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불확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왜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을까?

조선의 천문대를 만들자

세종은 중국 제도에서 벗어나 조선에 맞는 독자적인 천문 관측을 수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는 다 됐다. 이미 장영실을 비롯한 천문가들을 중국에 보내는 등 새로운 천문 기기를 제작할 기초를 갖춘 세종이었다.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세종은 학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집현전을 만들고 경연을 적극 활용했다. 세종은 경연 중에 정인지(鄭麟趾, 1396~1478)를 바라보며 “우리나라 제도가 항상 중국을 따랐으나 유일하게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만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 경이 대체학 정초와 함께 천문을 연구하여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면 좋겠네”라고 하여 천문대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공식적으로 천문 사업을 천명했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할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왕립천문대를 건설할 원대한 꿈이 있었다. 조선의 왕이라면 제왕의 과학이라 불리는 천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태조 이성계가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이름의 천문도를 제작했고, 태종도 천문에 관심이 많아 왕실 천문대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01 혼천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2 앙부일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2



03

03 혼천전도(渾天全圖)(국립민속박물관 소장)

04 성정시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른 상징성이 있었다.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는 법궁인 경복궁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간의대 건설은 천문 관측을 통해 그 현상을 정사에 정확히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간의를 만들어 관측하려면 먼저 간의대를 만들어야 했다. 간의대를 제작하는 데는 대략 1년여의 기간이 걸렸다. 간의대는 경복궁 경회루 북쪽 편에 지어졌다. 간의대의 크기는 높이 31척, 길이 47척, 너비 32척이고 대(臺) 위에 돌난간이 있었다. 이것을 다시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는 약 6.4m, 길이는 약 9.7m, 너비는 약 6.6m에 달한다. 높이가 6.4m이면 아파트 1층의 높이가 대략 3m 내외이므로 2층 정도 되는 높이이다.

세계 최고의 천문대를 완성하다

간의를 제작하라는 세종의 명을 받은 예문관 제학 정인지와 대제학 정초는 옛날 천문 서적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실제 간의를 제작하는 일은 증추원사 이천과 호군 장영실이 맡았다. 일찍이 장영실은 세종의 명으로 명나라에서 광수경의 간의를 익히고 돌아왔다. 간의 제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장영실이었다. 장영실은 나무로 간의를 만들고 서울 한양의 북극고도를 측정했다. 장영실은 나무로 만들었던 천문의기를 하나둘씩 구리를 녹여 만들어나갔다.

1432년(세종 14년) 간의대 건설을 시작으로 세종의 천문 사업은 총 7년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이듬해인 1433년에 간의대가 축조되고, 1434년에 자격루와 앙부일구, 1437년 일성정시의, 1438년(세종 20년)에 흠경각 옥루 등이 완성되면서 왕립천문대 사업이 종료됐다. 1420년 천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해 18년 만에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이다.

세종 대에 지은 간의대는 조선 전기 동안 천문대로서 운영됐다. 간의대는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나 중국의 고관상대보다 건립 연대가 앞선 왕립천문대였다. 관측기기의 규모 또한 그리니치천문대나 고관상대에 뒤지지 않았다고 하니 당대 최고의 천문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 대 왕립천문대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관측해 백성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정확한 시간은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종 대에는 자격루를 비롯해 앙부일구, 현주일구, 일성정시의 등 이전 시대에 비해 한 차원 다른 다양한 시계가 제작됐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간의대와 같은 왕립천문대가 건설돼 한양을 위도로 정확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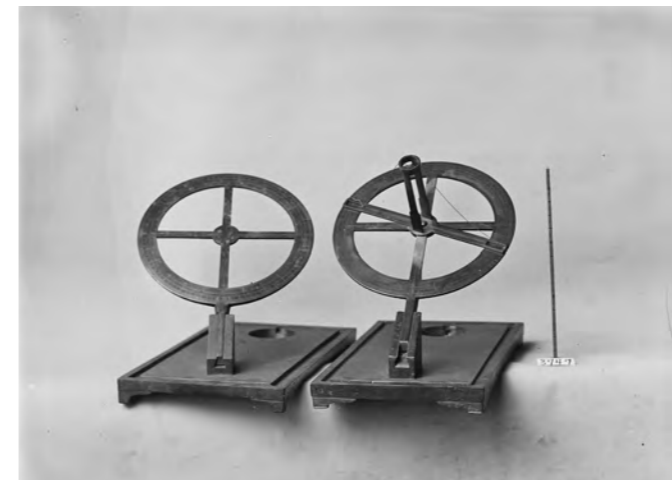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과학 국가를 만든다

동아시아의 천문학이 13세기 원나라 광수경에 의해 꽃을 피웠다면 15세기에는 세종과 장영실, 이순지와 김담 등에 의해 조선에서 꽃을 피웠다. 왕권이 크게 약화됐던 고려는 원나라의 혁신적인 과학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새로운 왕조인 조선이 들어선 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세종대왕의 주도로 천문학에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사가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은 “15세기 조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관측기기를 장비한 천문기상대를 소유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였던 니덤은 “한국은 15세기 초와 17세기 초에 천문학이 큰 도약을 이루었다”라며 세종대의 과학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역사에서 15세기는 세종이 통치하던 시기이고, 17세기 초는 인조와 효종이 통치하던 시기이다. 전자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천문학이 발전했다면, 후자는 서양 천문학이 전래되면서 이를 계기로 조선의 천문학이 발전했다.

15세기 조선을 세계 수준의 과학 국가로 만든 세종은 1418년 부왕인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아 조선왕조 제4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한 지 27년 만이었다.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창업 군주라면, 태종은 수성 군주였다. 세종 역시 수성 군주임을 자처했지만, 선대 왕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조선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고전을 연구하고 고증해 이른바 예악(禮樂)으로 대표되는 유교 문물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 천문학의 정비는 이와 같은 유교 문물의 정비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또한 그 중심에 있었다.

04



멀지 않은 우주탐사의 꿈

인류 역사에서 과학 문명의 발전은 누구나 진리라고 생각한 것을 뒤집는 데서 출발했다. 세종의 왕립천문대 건설, 갈릴레이의 지동설, 실학자 홍대용의 무한우주론 등은 기존의 생각을 전환시킨 ‘뉴패러다임(New Paradigm)’이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이러한 뉴패러다임에서 시작된 것이다.

1969년 7월 21일,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달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뿜은 암스트롱의 유명한 말처럼 그의 작은 걸음이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암스트롱 이후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됐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태양계를 탐사하거나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됐다. 심지어 사람이 며칠씩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도 가능해진 시대다.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을 모든 나라가 꿈꾸지만 인공위성을 만들거나 우주인을 배출한 나라, 우주센터가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힐 정도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30일 역사적인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11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 100kg급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우리 힘으로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나로호 개발 사업이 오랜 시간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2021년 10월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다. 비록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이라는 임무는 실패했지만, 이번 발사의 성공은 바야흐로 신우주 시대의 막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22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11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불굴의 집념으로 조선의 하늘을 가진 세종처럼 38만km를 향한 달 탐사의 성공도 머지않았다.

정성희
전통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우주관과 역법>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년간 서양 천문학의 전래와 조선시대 우주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세종의 하늘>을 비롯한 많은 책을 썼다. 현재 실학박물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경기도문화재위원으로 있다.



이야기 셋. 우리 곁에 여주세종문화재단

52 다시보기

여주목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다
'이주 시대의 언어' 대화를 바라보며
'여주 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민중사의 과제'를 다시 보며

62 들여다보기

여주세종문화재단 공연·교육·학술대회·
문화 행사·축제·전시

66 여주의 창

독자 후기+설문 이벤트



학술대회 시작을 알리는 이항진 여주 시장

여주목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다

여주목(청심루)학술대회

2021년 9월 30일 2021 여주목(청심루)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여주목과 청심루 복원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1세기 글로벌 시대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산시키고, 여주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21 여주목(청심루) 학술대회의 의의와 향후 지향점을 짚어본다.

역사가 흐르는 여주

여주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문화 자산이 풍부하고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도시이다. 여주는 지역 내 157점의 불교·유교 문화재와 함께 한양과 가까운 지정학적 이유로 명문 가문과 역사적 인물이 즐비하다. 특히 글로벌(global+local) 시대 지역을 넘어 세계적 유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과 인문 정신이 흐르고 있고, 8명의 왕비를 배출한 고장답게 그 대표 격인 명성황후의 생애를 보 여주는 생가 유적지도 자리하고 있다.

역사 깊은 여주에는 수천 년의 숨결,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은 여주 8경이 존재한다. 역대 정주민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 안겨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고 이는 여주인의 심성에 간간히 반영됐다.

지역의 역사·문화가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이란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지역 거주민에게 문화적·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역사 도시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물리적 대상과 장소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도시가 역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유 형태와 양상이 유지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공동체의 기억이 누적된 실체적인 건축물과 대상물이 가능한 한 현존해야 한다.

조선시대 경기 4대 목의 하나로서 여주 관아의 존재는 여주 시민에게 뿌리 깊은 정체성과 존재 의식을 제고하는 문화유적이다. 여주목의 관아와 부속 건물인 청심루는 조선 500년 지역 행정과 정치·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지역문화의 높은 수준과 인적·문화적 네트워크의 포스트(교류·소통·접점·중심)화 등 다양한 특성이 집중한 곳이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에 지역 문화와 이미지,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주를 비롯한 행정도시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축적은 물론 생태와 경관, 고품격의 문화가 성장하고 교류됐던 광역 지역문화의 거점

이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의 도시, 행정의 도시, 개발된 도시는 땅도 또 재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이 같은 역사 문화 정신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이런 조건들을 재발견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주목은 '지역문화 정체성의 거점', '특수한 지역문화 원형의 전승처'로 이해의 폭이 확대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관아 문화는 다양한 가용성과 경쟁력이 있는 미래 자원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01

02

- 01 학술대회 진행을 맡은 김광희 사회자
- 02 여주학 정립을 위해 열린 토론회인 오영교 연세대 교수
- 03 학술대회 발표자와 여주목 복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김진오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 04 종합토론 좌장 박상일 전 청주대 교수

여주목 관아 건물은 경관이 깨지고 변형된 상태에다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도의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문화재 지정과 완전 복원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여주목의 원형을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면 대표적·상징적 건물을 복원해 상징 공원화하고 관아 문화 이미지를 살린 경관 정비 및 기존 건물터와 현장 표지석, 설명·안내문 등과 같이 차선책이나 단계적인 노력으로 유형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보강하는 노력이 부가돼야 하는데, 그 하나는 관아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을 연계, 동원해 패키지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세종대왕릉과 명성왕후 생가터 등을 연계한 스토리 밴딩(혹은 역사 투어)을 하는 방안도 그 것이다.

삶의 중심, 여주 만들기의 모색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 따라 환경친화,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구호의 등장은 지자체의 행정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점에서 “늘 변화하는 것이 진보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의 마성이 도시개발에서 강조된 ‘의사(擬似)적 근대주의’가 아닌 ‘지역 발전이란 무엇이며 어떠한가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가 역사적·공간적 중요성과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자기진단에서 출발한다. 흔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이 지닌 잠재력에 걸맞지 않은 이미지의 문제이다.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이 한강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이슈를 선점하거나 정치적 영향력,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감각의 제고를 통해 지

자체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여주시는 정체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보완할 방안이 조금 더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여주의 역사적 사실, 문화적 전통의 발견, 환경적 가치를 환경친화하는 전략의 수립 등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대두된다. 첫째, 지역 정주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함양시켜 발전의 동인 및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지역 전통의 새로운 발견과 위상 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작업에서 가장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새롭게 진취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단초 작업으로서의 지역학, 그것이 지역 발전과 관련된 두 번째 필요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주관한 ‘2021 여주목(청심루) 학술대회’가 연양동 썬밸리 호텔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관련 전문가와 지역 연구자들을 동원해 ‘여주학과 청심루 복원의 의미와 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학술대회는 필자의 ‘여주의 정체성 정립과 여주학 연구-조선 시대 여주목의 역사 복원과 관련하여’라는 기조 강연에 이어 제1부 ‘여주목과 청심루의 가치와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상순 연세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고, 노재현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는 ‘여주팔경의 조망 시점으로 본 청심루의 위상과 경관구조’를, 반재유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여강 청심루 제영(題詠)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광주·과주·양주의 관아 복원 사례와 비교한 여주목 관아의 건축학적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심루와 여주팔경과 관련된 조경학적·지리적·한문학적 위상에 대해 소상한 분석이 가해졌다.

제2부 ‘여주목과 청심루의 지역적 의미와 시민의식’에서 귀한 지역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장호 여주신문 대표가 ‘지역 언론에서 본 여주팔경과 청심루’를 발표했고, 안동희 여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여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청심루에 대한 여주 시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사는 ‘여주 관음지·지리지와 근대 기록물을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아’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청심루와 여주목 관아에 대해 그동안 지역에서 축적된 연구와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해주었다.

제3부 ‘여주학 출발과 청심루 복원의 미래’라는 종합 토론회는 박상일 전 청주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구분만 여주시청 문화재팀장, 김수경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수, 한정수 건

국대 사학과 교수, 이진형 연세대 연구교수가 참여해 여주학 정립과 문화재 복원의 당위성을 둘러싼 여러 의제에 대해 타 지역의 연구 사례와 수준을 비교하며 열린 토론을 전개했다.

참된 여주학 정립을 염원하며

이장호 발표자는 1994년 부임한 이필운 군수가 당시 여주군청 청사에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읍시다”라는 현수막을 크게 걸었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지어 여주학의 정립과 여주목 관아의 복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었고 참석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필자는 바로 그 같은 진정성 어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야만 참된 지역학으로서 여주학이 정립된다고 생각한다. 부디 여주학의 연구 성과가 쌓여 지역의 문화를 다듬고 재발견해 물질적 풍요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의 조건들을 마저 채워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여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주학’은 무엇보다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04



‘이주 시대의 언어’ 대회를 바라보며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열었다. ‘이주 시대의 언어’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의 언어 연구자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이 발표자로 나선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연설, 학술 발표,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글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2021 한글날 학술대회의 의미를 살펴본다.

언어의 단일성과 표준성의 빗장을 풀자

언젠가 공항 라운지에서 독특한 언어를 들었다. ‘이건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공부한 적이 있었던 독일어 음가는 아니었다. 짧게 체류해 학습할 기회는 없었지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여행하면서 들었던 말도 아니었다. ‘아, 궁금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물어봤다. 그리고 알아냈다.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언어인지 자세히 알아내지 못했다. 세상은 넓고 더 알고 싶은 언어는 넘친다. 공항이 아니라도 관광지, 축제, 쇼핑 단지, 아니 학교와 직장에서도 일상적인 언어 경관이 놀랍게 변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인 한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에 내려가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들른 적이 있다. 주문을 받으며 고객과 응대하는 직원 말이 참 재밌다. 역양은 대구 방언인데 통사 구조는 서울 표준어로 들린다. 대화 전략의 특성으로 보면 직원들은 아마도 나름의 표준적인 언어 사용, 말차례 교환에 관해 사전 교육을 받은 것 같다. 커피 마시는 곳에서 영어 단어를 포함한 별별 기호가 넘치고, 대구식 억양, 서울식 문장, 표준화된 대화 구조, 이걸 모두 이채롭고도 창조적인 조합이다. 내 귀에는 마법과 같은 언어로 들린다.

빛꽃 핀 산자락이 아니라도 이와 같은 말과 글의 잔칫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단일한 언어들의 대립, 박물관에 모셔둔 언어, 결핍의 언어에 대해 연구하는 분도 있다. 나는 모(국)어에 보태진 새로운 언어기호의 자원, 흥겨운 언어들의 축제, 새롭게 학습한 언어만큼 변하고 변할 수 있는 세상에 더 관심을 둔다. 언어는 단순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접촉, 횡단, 생태, 공간적 속성으로도 상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으로 표준 한국어만 사용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유학, 이민, 사업,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이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소비하며 살아간다. 이주민은 ‘그들’이지만 ‘우리’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국가, 민족, 모국어를 걸고 우리는 그들과 대립하곤 한다. 차이와 다양성, 경험과 직관의 언어 자원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면 좋겠다. 언어만이라도 단일성과 표준성의 빗장을 먼저 풀면 좋겠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토크 콘서트를 알리는 카드뉴스

학술성과 대중성을 포용한 가슴 설레는 대회

여전히 세계화와 이주의 시대적 상상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주 시대의 언어’ 주제의 2021년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행사에 진심으로 경탄과 찬사를 동시에 전한다. 크지 않은 도시에 위치한 문화재단이 보여준 인문학적 역량에 깜짝 놀랐다. 오래된 혹은 커다란 학술 단체들이 관행으로부터 좀처럼 다루지도 못하는 주제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론과 현장, 학술성과 대중성, 미시와 거시, 진지함과 경쾌함을 모두 포용한 가슴 설레는 대회였다.

우선 기조연설로 참여한 카나가라자(Suresh Canagarajah)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주 시대의 언어 사용과 문화정체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 다른 기조연설을 맡은 나 역시 《접촉의 언어학》 혹은 《앵무새 살리기》와 같은 단행본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언어 경관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대회였지만 내 연구 문헌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카나가라자 교수를 여기서 다시 만난 건 큰 기쁨이었다.

기조연설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분과 발표는 서로 다른 현장과 각론의 연구 주제가 다뤄졌다. 1분과 ‘이주 시대의 언어 현실과 정책’에서 발표한 더글라스 키비(Douglas Kibbee) 일리노이대 교수, 이오리 이사오(Iori Isao) 히토츠바시대 교수, 이학윤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주와 이동의 시대에 언어, 언어적 권리, 초국가적 한인 가정의 언어 실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한국 밖에서 언어에 관한 권리,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었다. 2분과 ‘접촉지대의 언어들’에서는 이호영 서울대 교수, 오영진 인문학협동조합 교육복지위원장, 박수현 상지대 교수, 신견식 작가, 신은혜 한양대 교수가 다양한 현장을 소개해주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야민정음의 기원, 한국어 시험의 사회적 역할, 유튜브에 나타난 한글 키네틱 타이포그

2021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hangeulyeouju.kr/한글날학술대회.kr)





토크 콘서트 장면

래피, 콩글리시의 가치를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공연 연출자, 한국어교육 강사, 전문 작가의 시선으로 설명했는데 흥미로운 논점이 많아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한글, 한국어, 한국어교육에 관한 세상의 인식을 다루면서 콩글리시와 비교하기도 했다. 접촉, 횡단, 공간의 전환은 교과서, 고부담 시험, 교사 교육부터가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고, 발견되고, 수용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도였다.

3분과 '토크 콘서트, 한 발짝 떨어져 보는 한국: 한글, 그리고 한국의 문화' 역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을 것이다. 평론가, 수필가, 방송인, 데이터 분석가인 웰시(Barry Welsh), 마샬(Colin Marshall), 샤키야(Sujan Shakiya), 벨라코프(Ilya Belyakov), 아이야노(Imatitikua Aiyanyo)는 영국, 미국, 네팔, 러시아, 나이지리아라는 소속 국가의 지리적 차이만큼이나 다른 경험적 시선을 한글과 한국의 문화 평론에 보탠다. 앞서 제도권에서 다루지는 언어 정책, 시험의 제도, 표준 언어, 교육과정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유쾌하고도 가볍게 바깥의 시선으로 비추어지는 한국, 한글, 한국 문화를 이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존'하고 '횡단'하고 '접촉'하자

이처럼 작은 도시에서 기획된 문화재단의 한글날 행사는 오랜 전통의 전문적인 학술 단체가 제공하는 행사 수준보다 더 탁월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크면서도 세심하게, 총론적이면서도 각론적으로, 한국문화의 안과 밖 시선을 모두 수용하며 국제적인 대화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발표문은 모두 원

문으로 제시했고 심지어 그걸 한국어나 영어로 모두 번역해 두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어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주의 시대에 언어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질문에 혜안이 넘치는 논점이 2021년 여주세종문화재단의 한글날 행사 자료집에 모두 수록돼 있다. 다시금 넘쳐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다중적이면서도 생태적인 언어 환경의 논제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일독을 권면한다.

노파심에 이것도 언급하고 싶다. 횡단, 접촉, 서로 다른 언어들의 조합이 다뤄지는 표면적 논의만 보고서 우리의 귀한 모어 자원인 한국어를 영어,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로 선블리 교체하자는 논제로 오해하면 안 된다. 대회 참여자는 더 다양한 언어 담론을 제시하며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언어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는 토종 한국인의 표준 한국어에만 우리가 집착할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이주와 세계와의 언어 경관에 우린 끈대 주장만 하게 될 것이다. '소유'하고 '정복'하고 '대립'하자는 주장에 염려를 보태며, 오히려 생태적으로 '공존'하고, 호기심을 갖고 '횡단'하고 '접촉'하자는 새로운 논점을 여주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그리고 거기 참여한 많은 교수,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었다. 그런 대회에 참가하고 함께 말과 글을 섞은 것만으로 영광이다. 다시 한번 귀한 기회, 멋진 인문적 상상력을 보여준 여주세종문화재단과 관계자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여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평화와 공존의 언어 시대를 주도하는 지성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야기 셋. 다시 보기

글 양현중(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사진 제공 여주세종문화재단



종합 토론 장면

'여주 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민중사의 과제'를 다시 보며

동학 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 동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주 동학의 정신사 흐름과 사상을 담은 역사를 정립하고, 해월 최시형 묘소의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유튜브 채널로도 공개돼 더욱 많은 시민의 참여가 가능했던 2021 동학학술대회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에도 공개됐다.



코로나 시대 학술대회 엿보기

2021년 11월 11일 열린 동학학술대회는 여주에서 동학이라는 새로운 민중종교 사상이 전파돼 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지역사의 전개와 의미를 살피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 모임은 봄에 예정됐다가 두 번의 계절을 넘겨 늦가을에야 개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발표자와 청중이 분리된 채 다른 시공간에서 마주하게 됐다. 학술대회는 전체적으로 기획과 연출한 대로 무난히 진행됐지만, 각부별 발표의 주제와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관객과의 대화나 현장의 열기는 느낄 수 없었다. 그날의 학술대회 영상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접할 수 있다. 여주 시민과 한자리에서 호흡할 수 없었던 그날의 감동을 되새겨보자.

민중적 지식인 해월 최시형과 이이화 선생을 만나다!

여주 지역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념학술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9년 11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여주 지역 농민혁명을 기념했다. 여주시와 여주박물관이 주최하고, 동학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였다. 그러나 여주 동



동학 학술대회 사전 답사

학농민혁명의 행사가 성과 있게 끝나지는 못했다. 당시 발표회의 진행은 역사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긴 했지만, 여주 동학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주 관련 자료가 많지 않고 전승 형태로만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최한 여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획의 특색은 기조 강연과 기념사에서 두드러졌다.

우선 '해월 선생의 생애와 사상'(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에서 여주에 묻힌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 선생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해월 최시형 묘수 경기도 문화재 지정 기념을 겸하기도 했다. 윤석산 교수에 의하면, 해월 선생의 사상이 스승 최계우의 가르침인 시천주(侍天主)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다. 모든 이에게 시천주가 있으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인여천(事人如天)'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만물에 대해서도 한울님을 모신다는 의미로 '이천식천(以天食天)'으로 옮겨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했다. 이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온 생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 3월에 돌아가신 이이화 선생의 삶과 농민전쟁 연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의 역사 연구 출발점은 《허균의 생각》에서부터였으며,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이해 각종 동학 기념 사업회를 이끌었으며, 동학의 연구를 아래로부터의 역사로서 민중사를 정립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했다. 선생은 불의에 항거하는 동학농민군을 닮았다고도 한다. 선생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사

회의 독재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학벌과 지벌, 불평등한 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동사회를 꿈꿨다. 그래서 선생은 역사 현장 방문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저항해 나갔다. 선생은 시대의 참스승이요, 참선비였으며, 진솔하고 솔직한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해월 선생은 19세기의 대표적인 민중적 지식인으로 지칭되듯이, 한국에서 민중운동을 개척하며 하나의 전설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선 이이화 선생의 삶을 통해 민중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려고 했다.

학술대회 과제: 여주 동학의 자료 발굴과 역사교육의 필요성 제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로서 여주 동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했다. '경기도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이병규 동학농민혁명재단 연구조사실장),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지역'(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발표가 이어졌다.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대해 임동호의 약력 기록과 일본의 탄압 기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임동호는 1893년 4월 입학선의 전교를 받아 동학에 입도했다는 사실, 이후 700여 명을 전도했다는 것, 또한 2차 봉기 때 여주 동학농민군은 9월 22일 근거지인 신지리를 출발해 12월 18일 보은 북실전투까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주요 전투에 모두 참여했다.

제2부에서 유교의 동학 비판과 역사교육의 과제에 대해 '유교지식인 매천 황현의 동학 비판과 민중관'(왕현중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고교학점제하 지방사교육과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서술 방향'(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을 발표했다. 먼저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에 대한 유교지식인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매천 황현의 민중관에 대해 다뤘다. 또한 현재 지방 사교육과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서술 방향에 대해 역사교육의 현재적 의미를 다뤘다. 두 주제는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당시와 현재의 동학 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이 학술대회의 개최 의미는 제3부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민중사의 모색'에서 전망됐다. 배항섭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세 가지 담론 과제를 제시했다. ①'반봉건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서구 중심주의를 넘어 ②동학과 농민군의 생명관·자연관: 근대중심주의의 너머 ③'반외세'와 내셔널리즘을 넘어: 글로벌한 연대의 지향 등이었다. 그는 언제나

지 근대 타령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예컨대 200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과 관련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를 통해 불평등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하나의 인류로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학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의 대미, 종합 토론을 만나다!

2021 여주 동학 학술대회의 쟁점은 역사학계의 주요 연구자와 토론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한 종합 토론의 장에서 다뤄졌다. 필자는 당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았는데,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정리해 진행했다. 첫째, 경기도 여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료의 발굴과 의미에 대해 향후 어떤 연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여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농민군 주체들의 다양한 기록물, 예컨대 참여자와 후손들의 증언 기록, 당시 유교 지식인의 기록, 정부·일본 측의 기록 등에 대해 민중사의 맥락에서 재해석돼야 한다는 점, 나아가 새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재권 서강대 국제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홍동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둘째, 동학농민혁명의 담론에 대해 반봉건 근대주의, 서구중심주의, 근대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 더 나아가서 생명 사상, 환경 등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대적인 인식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인식 전환, 반외세 투쟁에 대한 제3의 시각, 다른 세력과의 연대, 글로벌한 농민운동과의 연대 등을 생각해봤다. 또한 동학의 평화사상, 개혁 사상에 주목해보기도 했다(조성환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셋째, 동학사상과 대중화와 관련해 학문 간의 연대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가운데 동학 연구의 성과에 대한 세대 간 단절·분리를 극복하고 여주 시민 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공유하고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지방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교사·학생·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최근 MZ 세대 가치관으로 반봉건·반외세로는 공감할 얻을 수 없고 서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래서 해월의 묘수 자체가 장소적 의미가 있으므로 해월의 모든 것을 앞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임동호의 전투 참가 이야기가 공주 지역의 우금치 전승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김양식 청주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동학 관련 기념물·조형물을 시민과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점(신영우 교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종합 토론에서는 미리 각본을 짜지는 않았지만, 토론의 흐름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주의 동학을 어떻게 기릴 수 있을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지금부터 무려 130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이다. 오늘날 민중의 인권과 존엄을 외치고 권리를 찾고자 했던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번 여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여주 시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여주 동학의 흔적과 기억을 되살리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와 병행해 해월 최시형과 관련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편찬하는 것도 의미가 깊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사 기념물로서 능서면 신지리에 임동호 관련 표지석이라도 세워 기념하면 더 좋겠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주의 정체성과 애항심 강화를 넘어, 진보적 개혁과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와 연대할 수 있는 고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이화 선생이 마지막 저서에서 남긴 말씀을 기억하고자 한다. "역사는 기억해야 살아 있는 유산이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기억해 미래 인권과 통일의 유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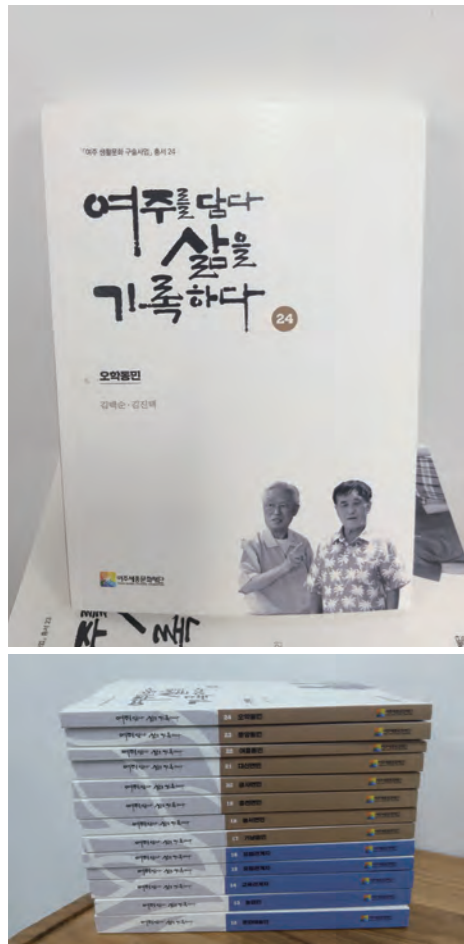
동학 학술대회 사전 답사



2021년 **도서**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
 12권~24권

여주 시민의 구술 채록을 통해 점차 잊혀가는 여주의 생활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한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가 2021년 12월 말 발간됐다. 2020년부터 발간된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총서》는 2021년에는 5개의 별도 주제(문화예술인, 농업인, 교육 관계자, 유림 관계자, 여주의 맛과 멋)와 8개의 지역 주제(가남읍민, 능서면민, 흥천면민, 금사면민, 대신면민, 여흥동민, 중앙동민, 오학동민)로 나눠 여주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본 도서를 통해 여주 시민 28명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여주의 역사와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억하길 권한다.

문의 : 031-881-9682



《여주도자기축제 백서》 **도서**
 여주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남한강의 '물', 싸리산의 '흙', 그리고 도공들의 '삶'이 만나는 도시 여주에서 펼쳐지는 30여 년의 여주도자기축제의 이야기가 담긴 《여주도자기축제 백서》가 2022년 1월 발간 예정이다. 《여주도자기축제 백서》는 1990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계승하고 나아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 여주도자기축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천 년간 도자기를 품어온 여주의 배경과 현황, 역사적 사건을 서술해 여주 도자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품은 도시로의 자부심을 담은 예정이다. 또한 역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홍보하는 아카이빙 환경을 구축해 미래 100년을 향한 여주도자기축제의 가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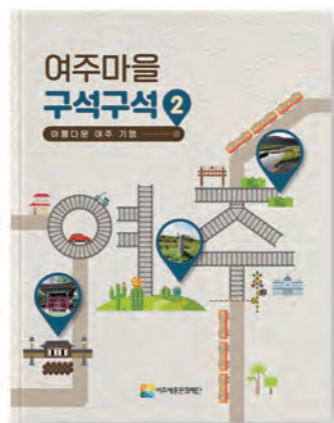
문의 : 031-881-9692



《여주마을 구석구석2》 **도서**
 여주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가 새록새록

여주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여주마을 구석구석》 2권이 2021년 12월 말 발간됐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40개 여주마을의 전설, 전통 놀이, 보호수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여주마을 이야기, 주민 인터뷰, 다양한 사진 자료 등이 수록된 《여주마을 구석구석2》는 여주 시민은 물론 지역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문의 : 031-881-9682



《여주를 이루는 12가지의 길 '여주 길하다'》 **도서**
 여주의 길한 이야기

여주 12개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길로 이어 엮은 《여주를 이루는 12가지의 길 '여주 길하다'》가 2022년 1월 발간된다. 여주에서 살아온, 현재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길을 재조명하고 여주가 지금까지 있게 한 길(吉)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여주 사람을 만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여강·도자기·쌀·왕비 그리고 세종'을 활용해 여주의 생태, 역사,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독자들에게 흥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문의 : 031-881-9692



《삶이 흐르는 여강 2, 여강의 전설》 **도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기 좋은 이야기책

여주 문화자원인 여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삶이 흐르는 여강 1, 여강길 이야기》에 이어 《삶이 흐르는 여강 2, 여강의 전설》이 2021년 12월 17일 출간됐다. 《삶이 흐르는 여강 2, 여강의 전설》은 여주시의 역사 문화자원, 여강과 관련한 전설·민담·설화를 모티브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책이다. 이번 책은 여강의 구비문화를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 총 3부작으로 구성했으며 26개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여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책으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기 좋은 이야기책이다.

문의 : 031-881-9667



해월 최시형 연대기 소설 《해월(海月)》 **도서**
 생생한 항쟁과 혁명의 이야기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주신문에 30회간 연재됐던 소설 <해월(海月)>이 책으로 발간된다. 당시 사람들의 터전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불굴의 저항정신을 조명한 소설은 제9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서철원 작가의 상상력으로 역사적 진실과 허구의 세계가 마주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원칙은 '하늘'에 있으며 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외치는, 끝없이 이어지던 항쟁과 혁명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았다.

문의 : 031-881-9694



2021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예술 비대면 성과발표회 문화 행사
 어려움 속에서 길어 올린 성과 공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해온 여주 문화예술 단체의 성과발표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시공간의 제한을 풀기 위해 예술인과 단체별 공연을 영상으로도 제작해 여주 시민에게 제공한다. 전문에서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발표회. 예술인과 단체별 다양한 색깔의 공연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공연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2021.12.29.(수)~12.30.(목)
 명성항후생가 문예관
 문의 : 031-881-9687~8, 9667



2022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 문화 행사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

2022년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2년을 함께할 여주시 예술인과 경기도 예술인(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_경기예술활동지원)을 대상으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전과 달라진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신설되는 <지역특화(도자)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당일 각 사업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해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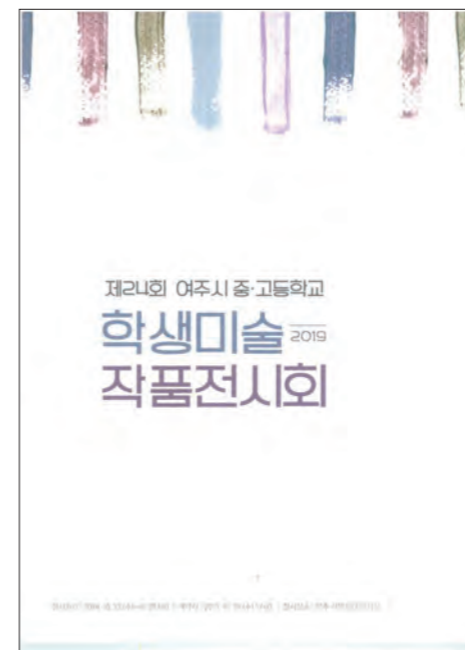
2022년 1월 진행 예정(홈페이지 게시)
 명성항후생가 문예관
 문의 : 031-881-9687~9, 9667



빈집예술공간#1 대관전시 <여주 학생미술작품 전시회> 전시
 여주시 중고교 미술 수업 및 실습 결과 전시

여주시 중·고등학교의 미술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제작된 미술 수업 및 실습 결과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전시한다. 미술 교과의 배움 중심 수업 사례를 일반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문의 : 031-881-9679



빈집예술공간#2 개관 전시 <집들2-비움에서 채움으로> 전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누구나 친숙하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빈집예술공간#2(동아리커뮤니티공간). 이곳의 취지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 작품 전시가 열린다. 빈집예술공간#2의 개관을 알리고, 연말연시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니팅(뜨개질)아트, 플라워아트, 도자예술,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빛을그리다>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분야·장르의 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체험으로 작가와 시민 간의 예술적 교류를 쌓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문의 : 031-881-9689



2021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결과전 전시
 여주 예술인의 활동 한눈에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온 여주 예술인들의 2021년 활동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한다. 2021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인·단체의 작품을 빈집예술공간#1에 모아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전문 예술인과 시민 예술인(동아리)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여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여주 예술인들의 활동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2021.12.21.(화)~12.31.(금) 10:00~18:00
 빈집예술공간#1(여주시 세종로 14번길 24 1층)
 문의 : 031-881-9687~8, 9667



여주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매거진 <여유> 독자 후기+설문조사 이벤트

<여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여주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가고자 2021년 가을호부터 창간·발간하는 생활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더 재밌고 알찬 매거진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후기 작성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기간 : 2022년 1월 1일(토)~1월 31(일)

생활문화 매거진 <여유> 독자 후기

50대 / 작가, 구슬기록활동가 독자

안녕하세요, <여유>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동네 이천에 사는 작가(동화·동시·작사) 겸 구슬기록활동가입니다. 숨은 보석 같은 여주의 아름다움을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오토이 담고 지켜가는 모습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 딱딱딱한 <여유>가 마련돼 있었네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첫걸음이 이리 단단하니 <여유>는 오래 사랑받으리라 응원과 믿음을 보냅니다. 특히 가족뮤지컬 현장 스케치가 참 좋았습니다. 두어 달 전에 갔다가 걸게 그림을 보고 여주는 정말 근사한 곳이구나 했었는데 지면을 통해 만나니 더 반가웠습니다. 다만 배우와 관객 인터뷰가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보도 자료 정도에서 머문 것 같아서요. 뮤지컬 생산 주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배우들의 이야기와 소비 주체인 관객들의 이야기가 더해졌다면 더욱 생동감 넘치는 페이지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의 구석구석을 소개할 지면이 생긴다면 강찬섭 등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곳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여유>가 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분야일 겁니다. 난개발 이전에 <여유>에서 다뤄준다면 여주의 문화 지킴이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이라 봅니다. 제가 구슬기록활동가로 시민들의 눈으로 본 여주도 만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주 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해 <여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30대 / 독자

기사 내용에 깊이가 있고,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다소 가볍게 읽기보다는 무거운 감이 있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는 코너 느낌의 글도 있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몰랐던 여주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한데, 도자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분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 독자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여유> 창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번 호의 '예술교과서를 펴고', '이 한 장의 사진'을 인상 깊게 봤어요. 앞으로 생활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많이 소개해주세요.

30대 / 생활문화예술 종사자 독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박찬수 선생님이나 옹기장 김일만 선생님을 <여유>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숨은그림찾기' 또는 '가로세로 퍼즐', '관련 퀴즈' 등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코너가 더해지면 더욱 풍성한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유'롭게 잘 봤습니다.

30대 / 생활체육 종사자 독자

'여강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 여주시에 대한 관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관련된 장소를 찾아보는 참여형 이벤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 운동 지도자 독자

옛 추억을 떠올리는 사진이 많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나의 집 그림 그리신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각하며 그리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네요.

20대 / 생활문화예술 종사자 독자

웹진으로 <여유>를 만났습니다. 창간호 기획 특집을 눈여겨봤습니다. 앞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공연과 행사, 축제, 학술대회 등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



- 1. 여주세종문화재단
- 2. 세종국악당
- 3.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 4. 여주시민회관
- 5. 신록사국민관광지-야외공연장
- 6. 빈집예술공간#1
- 7. 빈집예술공간#2(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발행일	2021. 12. 30.
발행처	(재)여주세종문화재단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7 031-881-9690, www.yjcf.or.kr
발행인	김진오
편집위원	박복선, 송현아
기획	서동수, 신동찬, 김예은
간별	계간
제호 디자인	아랑 김근혜(캘리그래퍼)
편집·디자인	플러스81스튜디오(02-542-0810)
ISSN	2799-4651